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운용기간 : 2021.10. 3. ~ 2022. 1. 2.



신영자산운용 고객 안내문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은 매년 투자자포럼을 통해 고객님들께
당사 운용현황과 시장에 대한 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사 유튜브에서 2022년 시장 전망 및 운용전략을
확인하시어 고객님의 투자판단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사 투자전략 및 상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ask@syfund.co.kr 로 문의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방법

1. 당사 홈페이지 접속 (www.syfund.co.kr)
2.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자산운용  을 검색
3. QR 코드 인식 가능 앱(예 : 카메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우측 QR 코드를 비추시면 동영상 연결 링크 팝업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2019년말에 발생한 코로나19가 2022년 현재까지도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주식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일시적으로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갔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무제한 돈풀기로 귀결되며 곳곳에서 자산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내수경기는 어려워지면서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줄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물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자산운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치보다는 가격의 변화가 뚜렷한 곳으로 자금이 흐르면서 단기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택시장이나 해외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국내주식시장에서도 4차산업관련주나 특정테마의 ETF가 각광을 받는 투자자산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각국이 기준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거나 올릴 예정이고 투자인기가 높았던 자산들의 가격수준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는 현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의 경기침체 국면이라 성장성 있는 자산이 부각되었지만 앞으로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투자기준이 될 것입니다. 작년 부과된 증부세도 그러한 흐름을 더 가속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낮은 가격과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우량주 장기투자를 투자철학으로 견지하여 왔고 현재도 일관성 있게 자산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업종, 주식, 시세 움직임이 큰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것이 대세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세상은 이러한 변화가 경기변동에 따라서 항상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왔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20조 규모의 미국 투자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표기업들도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기 위하여 부단한 채신과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읽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고 매수 후 발 뺄 수 있는 기업들을 어느 때보다도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주는 시장에 흐름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주식들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재평가 되거나, 기업이 변할 때, 또는 실물경기의 변화가 예상될 때,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불투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치주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래는 막아놓고 상방은 무한대로 열어 놓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량 가치주의 시세는 바닥, 간접투자시장의 비중은 최저, 배당수익률은 최고인 지금이 바로 놓치기 어려운 투자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신영자산운용은 항상 무한한 책임감으로 고객님의 자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목 차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 ▶ 재산현황
- ▶ 펀드의 투자전략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간(누적) 수익률
-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 총보수, 비용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을 추이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 ▶ 투자현황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 다.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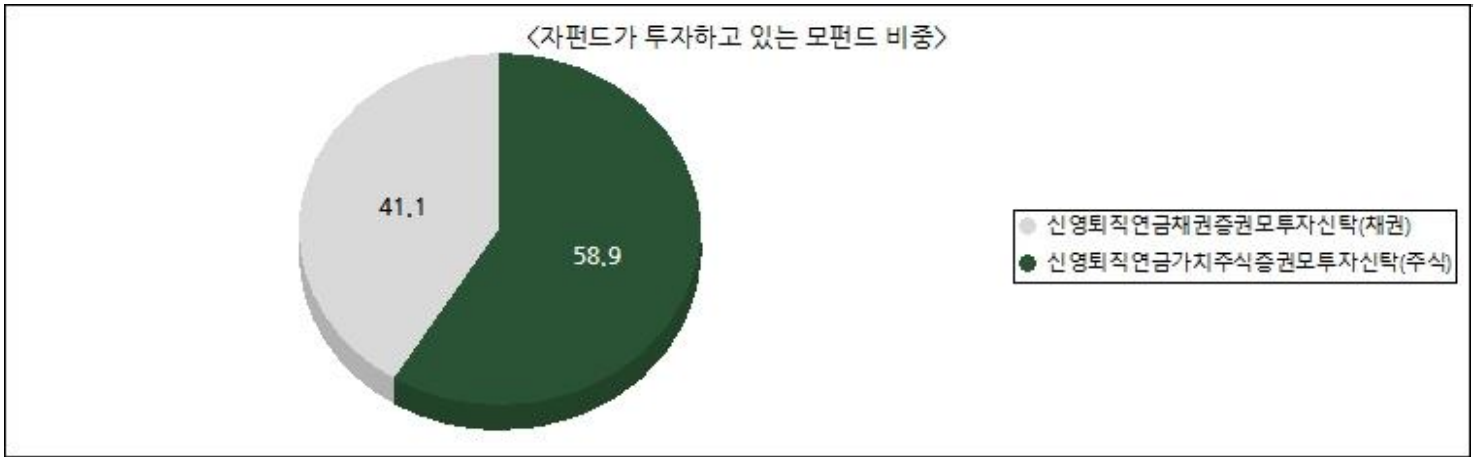
<참고-펀드 용어 정리>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고난도 펀드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77890, 53636, 53637	3등급(다소높은위험)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최초설정일	2008. 1. 3.	
운용기간	2021.10. 3. ~ 2022. 1. 2.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외 1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자산의 60% 이내에서 저평가된 우량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혼합형 펀드입니다.			

▶ 펀드구성



※ 자펀드가 투자 중인 모펀드 비중 및 구조를 보여줍니다.

※ 상기 그래프 및 구조도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현금성 자산등을 제외한 모펀드들의 투자비중을 100%로 가정하여, 각 모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모펀드 투자비중은 순자산 기준 투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주식혼합)	자산 총액(A)	6,973	6,870	-1.48
	부채총액(B)	25	24	-2.89
	순자산총액(C=A-B)	6,949	6,846	-1.48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6,114	5,988	-2.07
	기준가격 ^{주)} (E=C/Dx1000)	1,136.49	1,143.36	0.60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구분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금액	분배후수탁고수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 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2022. 1. 3.	1	5,989	1,143.36	1,143.11	

▶ 펀드의 투자전략

<p>투자전략</p> <p>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60% 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60% 이하를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입니다.</p>
--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가치주 위주의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60% 이하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① 주식투자: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편입비율 60%이상 유지

-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략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 종목매도는 적정가치에 도달하였거나,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빈번한 매매를 지양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구성: 당사의 재무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유니버스 내 종목군 중에서 투자 대상종목을 선정합니다. 분기 1회 신규 종목 추가 및 편입종목 삭제 등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 운용 회의를 통해 유니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자산배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의 교체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종목 발굴을 통한 주식선택에 집중합니다.

- 종목별 비중: 분산투자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 상대적 투자 매력도, 거래 유동성을 감안하여 비중 결정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채,통안채 및 공사채를 중심으로 우량회사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동종 및 이종 채권간, 채권과 채권관련 파생상품과의 상대가치 전략을 이용한 초과수익 전략을 수행합니다.

- 국채,통안채 및 공사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및 어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3년간 영업현금흐름, 금융비용부담률, 자기자본이익률, 유보율 분석을 통해 투자가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을 선별/투자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쿨, 정기예금 등 기타 유동성자산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실질자기자본비율로 평가된 투자가능 목록 안에서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 자산배분은 펀더멘털(기본적) 분석에 의해,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과 만기, 섹터 비중을 조절하여 수익률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당사는 리스크관리심의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 한도를 점검하고, 핵심위험요인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균등투자 원칙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시장예측을 통한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매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60% 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60% 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이자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0.60%로 비교지수 수익률 -0.66% 대비하여 1.26%p 상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54% + KIS종합채권지수 36% + Call 10%)

[주식 부문]

2021년 글로벌 경제 상황은 예상경로를 많이 빗겨 나간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낮은 금리환경 속에 코로나 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경제 재가동, 선진국의 재정확대와 투자로 인한 재고 확충과 인프라 투자 기대감 등 연초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신 잇따른 변종 출몰과 돌파감염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복병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선진국과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 차이는 경기 회복속도의 차이를 만들어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만들었고 인플레이션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이마저도 법안통과가 2021년을 넘기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미국의 긴축에 대비한 중국 정부의 선제적 긴축 조치, 헝가리 사태, 공동부유를 포함한 정책들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접종률, 엄청난 재정확대 정책으로 미국은 단연 돋보이는 실업률과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물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2022년은 FED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21년 높은 수출증가세와 견조한 기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익 정점 우려로 6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업이익 상승분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의 부정적 전망, 제조업경기의 고점 논란,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상승, 중국의 긴축 스탠스 등이 한국 기업이익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개인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매도로 인해 시장은 피곤한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시장은 수급적으로 매우 불리했는데 대형 성장주들의 IPO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종 상장에 대한 문제로 모회사들에 대한 할인율이 확대된 것도 주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함에도 유동성 감소로 인한 멀티플 하락이 코스피 하락이 주된 요인이며 이러

한 시장환경이 일부 2차전지 소재주 및 메타버스 관련주 인터넷 종목들로 쏠림을 유발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동 펀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개선에 초점을 두고 운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장의 변동성이 동 펀드의 포트폴리오 흐름과 괴리가 있는 시점이 구간구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MSCI 리밸런싱 진행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마감과 2022년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실적위주의 가치종목들이 추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좁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 및 실적 방향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문]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회의(이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종점이 1.50%가 될 가능성을 반영하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연내 자산매입 축소 시행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11월 국내시장은 기획재정부가 긴급 바이백(국고채 재매입) 2조원을 편성하고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영향에 투자심리가 개선되었고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리는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이주열 총재가 1.75% 이상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코로나 변이 우려도 더해지며 금리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시장도 코로나 변이 우려로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12월 국내시장은 물가 압력에 단기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장기 금리는 코로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에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부총재보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언급하였고, 기준금리 1.75% 가능성이 축소되며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월 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FDA 승인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회복되며 금리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또한 장기 금리는 추가경정예산 우려도 더해져 상승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에 금리는 상승하였지만,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장기 금리는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1월 초 국내시장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채권 공급 부담에 더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중반 수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시장도 물가 상승 압력에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10월 초장기물 채권의 금리 메리트 하락으로 초장기물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물 채권을 매수하는 교체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코로나 불확실성 확대에 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고 채권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우량 카드채권을 매수하였습니다. 12월에는 금리가 충분히 하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장기물 비중을 줄이면서 듀레이션^{주1)}을 소폭 축소하여 운용하였고, 초장기물 스프레드가 적정수준으로 확대되어 장기물과 초장기물 비중을 비교지수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단기물 및 크레딧(국고채 외 채권) 약세가 나타나 1년 이내 은행예금담보 CP를 높은 금리에 매수하여 이자수익을 제고하였습니다. 1월에는 긴축 우려에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중장기 국고채를 매수하여 듀레이션을 소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추이와 경제활동 상황 및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레포(REPO) 매도 전략을 지속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주력하였습니다.

주1) 듀레이션(Duration) :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율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며, 반대로 듀레이션이 작을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이 변동폭이 감소합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2022년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 기대치에 대해 전년의 기고효과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익증가율 둔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상당부분 선반영 하면서 선조정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상승과 하방 모두 제한적이라 판단합니다. 미국 금리인상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2번 정도가 예상되다가 4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마찰, 주택공급부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인력부족현상 등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 등이 2022년 물가를 여전히 높게 형성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요인인 반도체 공급부족, 해상 물동량 적체 현상 등은 2021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만하게 해소가 되고 있어 2022년은 공급망 차질과 물동량 적체로 인한 물류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으로 2022년 금리인상을 4번 이상 할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계감이 우세하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대한 선호심리는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경기 순환사이클을 타고 있던 2021년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성장주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2022년은 실적기반의 가치주가 좀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말 FED의 긴축정책 선회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증시가 발작증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국면은 2015년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이미 2021년 6월이 지나면서 선진국과 디커플링되며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긴축 스탠스와 정책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긴 하지만 FED의 긴축에 대한 부담감 역시 일부 녹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기 레벨 수준이 2015년과 같은 경기 수축국면에서의 긴축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영업환경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초의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했지만 2021년 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지속됨이 2022년의 경기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 오미크론 확산으로 각국이 봉쇄를 하고 있고 서비스 및 재화의 소비가 4분기 피크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2022년으로 일정부분 이연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낮은 실업률,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의 추이를 봤을 때 미국 소비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규모 및 통과 시점이 불확실하지만 기업중심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과 더불어 성장보다 안정을 꾀하면서 급격한 부양책보다는 완만한 정책기조를 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정유 등 기존의 탄소절감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량 제한을 통해 구경제 산업의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감소폭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용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운용하겠습니다.

[채권 부문]

1분기에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델타 변이에 비해 경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 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서비스업 소비는 다소 부진할 전망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에 3% 초중반 수준을 기록하겠지만 역기저효과에 점차 상승폭을 줄일 전망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은 물가 상방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고,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1.5%도 긴축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3회 인상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어 2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3월 자산 매입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수급은 추가경정예산이 설 전에 14조원 가량이 편성되고 잉여 세수 10조원을 활용하되 당장은 적자 국채로 대응하기로 하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균등 분할 발행 소식으로 다소 부담을 덜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물가 압력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며 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1.5~1.7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리는 현 수준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높은 물가 압력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은 금리 상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 확산은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고려할 때 2022년 기준금리가 1.75%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편드는 기준금리 상단을 반영한 레벨에서 듀레이션 전략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며, 수익률 곡선^{주2)} 전략, 크레딧(국고채 외 채권) 전략 등 이자수익이 제고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2) 수익률 곡선(Yield Curve) : 채권 만기와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 만기와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수익률 곡선은 기준금리 변동 및 시장전망 변동 등에 따라 평탄화 되거나 가팔라집니다. 채권이 수익률과 가격이 반비례이므로, 수익률 곡선 상에서 채권 만기 구간별 수익률 차이에 따른 매매를 시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만기 구간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며, 기울기가 더 가파른 구간의 수익률 곡선 하락효과가 더 높습니다.

▶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	0.60	-3.84	-3.00	0.5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6	1.19	-0.75	-1.29
비교지수 ^{주1)}	-0.66	-5.03	-2.25	1.84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54% + KIS종합채권지수 36%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	13.17	17.41	13.48
(비교지수 대비 성과)	-7.02	-10.14	-16.74
비교지수 ^{주1)}	20.19	27.55	30.22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54% + KIS종합채권지수 36%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94	-7	0	0	0	0	0	0	0	-1	-25	-327
당기	56	6	1	0	0	0	0	0	0	-1	-23	39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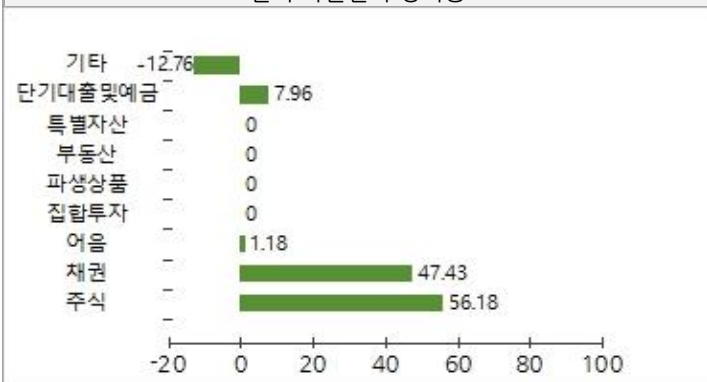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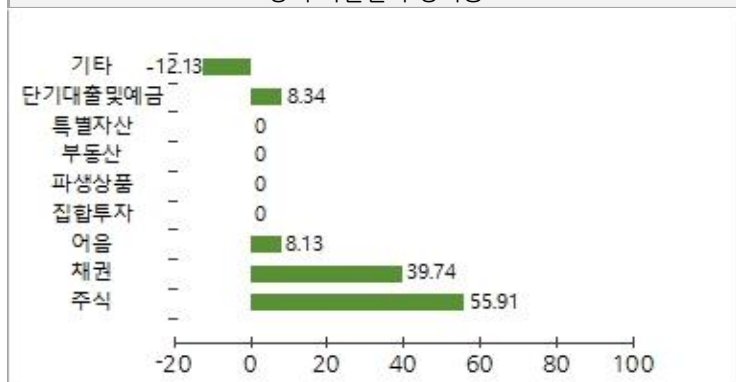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3,841 (55.91)	2,730 (39.74)	559 (8.13)	(0.00)	(0.00)	(0.00)	(0.00)	(0.00)	(0.00)	573 (8.34)	-833 (-12.13)	6,870 (100.00)
합계	3,841	2,730	559							573	-833	6,870

* () : 구성비중

전기 자산별 구성비중



당기 자산별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1.58	6	유통업	6.26
2	코스닥	9.70	7	서비스업	4.76
3	화학	9.14	8	건설업	3.92
4	금융업	8.48	9	기계	2.95
5	운수장비	7.18	10	기타	16.03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모펀드 기준)**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0,600	830	12.08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SK하이닉스	1,275	167	2.43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 **채권**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875-4109(21-9)	261	244	대한민국	KRW	2021. 9. 10.	2041. 9. 10.		N/A	3.55
국고02375-2712(17-7)	224	227	대한민국	KRW	2017. 12. 10.	2027. 12. 10.		N/A	3.31
국고02000-3106(21-5)	224	219	대한민국	KRW	2021. 6. 10.	2031. 6. 10.		N/A	3.19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12. 4. 1.	218	0.69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9	3,387,175	1	1,013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41	1,031,742	0	0	2110000545
원주영	책임운용역	1974	26	1,081,096	1	1,013	2109000987
최태이	부책임운용역	1973	8	191,232	0	0	2110000735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08.01.03.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7.11.17. ~ 현재	심창훈
책임운용역	2017.11.17. ~ 현재	원주영
부책임운용역	2021.04.29. ~ 현재	최태이
부책임운용역	2015.02.13. ~ 2021.04.28.	장미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자산운용사	8	0.11	7	0.11	
판매회사	16	0.23	15	0.2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25	0.34	23	0.34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0.02	1	0.01	

내배 중개 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2	0.02	1	0.02
	증권거래세	2	0.03	1	0.02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구분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주1)}	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신영신중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	전기	1.3671	0.0003	1.3697	0.1221
	당기	1.3671	0.0003	1.3697	0.1186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374,086	17,093	327,739	17,738	16.41	65.10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주식)

2021. 4. 3. ~ 2021. 7. 2.	2021. 7. 3. ~ 2021.10. 2.	2021.10. 3. ~ 2022. 1. 2.
44.78	19.79	16.41

7.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펀드 투자현황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투자대상	보유비율
집합투자기구명	발행총수(A)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B/A*100(%))
해당 내역 없음			

8.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본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이 모든 위험을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 사유

이 투자신탁은 기준일 현재 환매중단 등의 위험발생 및 위험발생가능성이 없습니다.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이 투자신탁의 컴플라이언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점검 : 주문 및 매매단계에서 사전컴플라이언스 점검시스템을 통해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은 법규, 규약, 내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제코드화 하고, 규제등급을 지정하여 점검합니다.
- 장중 점검 : 주문체결 진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을 점검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가능한 당일 즉시 해소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점검 :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전일 매매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최종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즉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관리 수행 체계]

- 펀드 내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점검을 위해 베타, 보유 종목별 평균거래량 대비 보유비율, 전량매도 최소예상기일, 채권 자산 듀레이션, 신용등급별 보유비율, 발행주체별 보유비율 등의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펀드 내 리스크 수준을 측정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집합투자재산 및 각 개별 투자신탁의 펀드 유형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하여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펀드의 위험 수준 및 위험허용한도 위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수단 등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이 투자신탁은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투자신탁입니다. 만약, 해당사항 발생시 규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 자전거래 현황

자전거래규모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	-	-	-

최근 1년간 자전거래 발생 시, 자전거래 발생 사유,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등 방지를 위한 실시간 방안, 절차 등

해당 내역 없음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주요 비상대응 계획

위기상황 발생 기준에 대한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대응 업무처리방침을 통해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펀드의 주요위험요소 및 유동성을 점검하며 위기대응을 실시합니다.

공지사항

1.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서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전환형자(주식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4.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자본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